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검토 세미나

- 일 시 : 2022. 7. 27. (수) 14: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검토 세미나

◇ 한국사회 외국인의 유입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동반 입국 또는 중도입국 등으로 언어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외국인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I 목적

- ‘충남 다문화정책학교’ 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과정 운영현황 검토 및 논의
-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부족으로 나타나는 또래관계형성과 교과과정에 대한 어려움 극복 등에 대한 노력 마련

II 개요

- 주 제 :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과정 운영현황 검토
- 일 시 : 2022. 7. 27.(수) 14:00 ~ 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14:00 ~ 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전체사회 : 김진영 박사 (충남연구원)
14:10 ~ 14:40	30'	[발제] 발제1 : 윤향희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발제2 : 전세경 교수(공주교육대학교)	
14:40 ~ 14:50	10'	휴식	
14:50 ~ 15:50	60'	[사례 발표 및 토론] 토론1 : 박민아 교사(동성초등학교) 토론2 : 유경민 교사(합도초등학교) 토론3 : 홍정민 교사(남성초등학교) 토론4 : 최지현 교사(용화중학교) 토론5 : 배미훈 교사(신촌초등학교) 토론6 : 이미영 팀장(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토론7 : 임정규 팀장(당진시 여성가족과) 토론8 : 나운규 차장(충청투데이)	
15:50 ~ 16:00	10'	[질의응답]	
16:00 ~		[폐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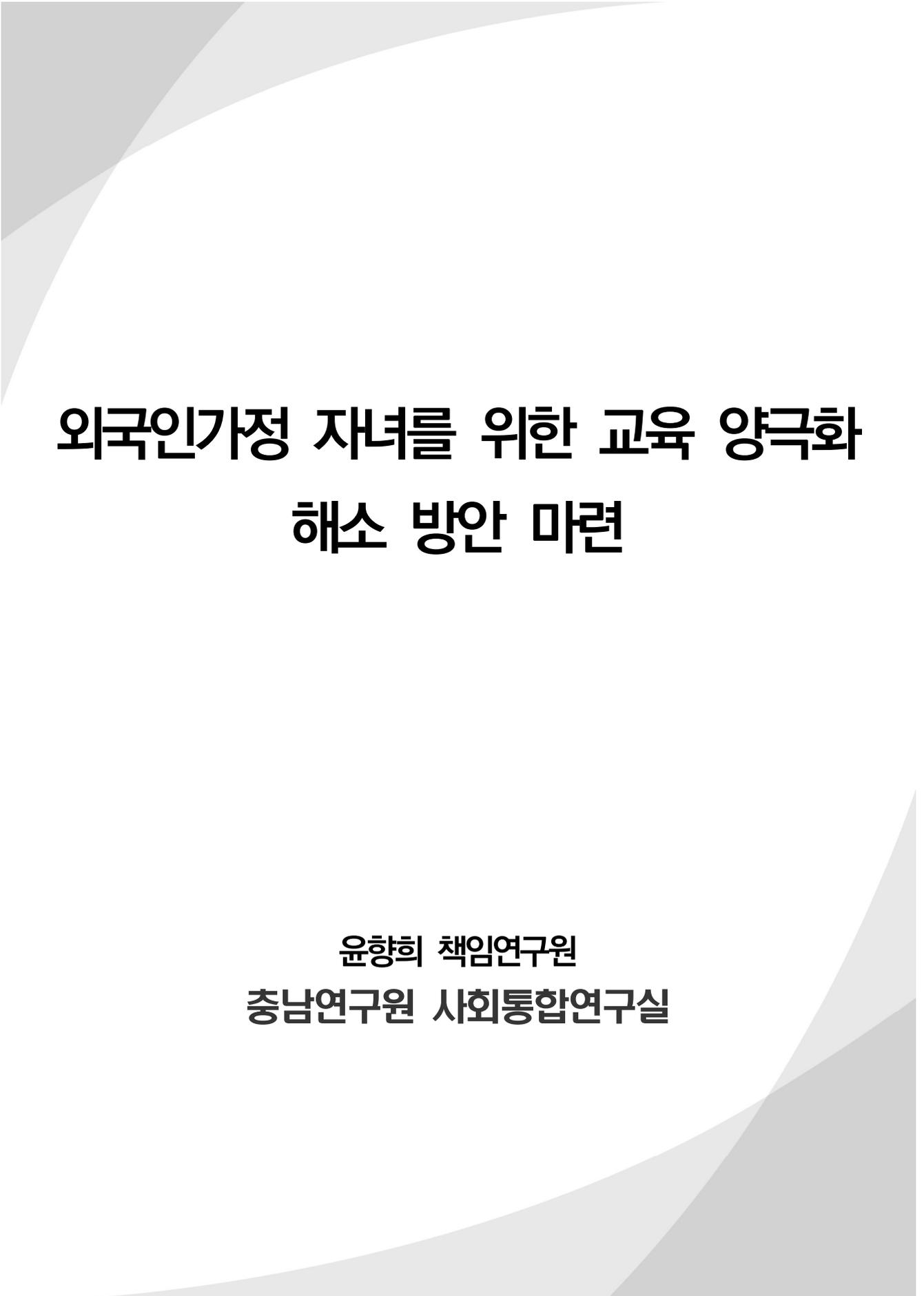
I.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윤향희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II.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전세경 교수(공주교육대학교)

III. 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윤향희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윤향희

외국인가정의 유형



- 외국인노동자 가정
- 재외동포 가정
- 유학생 가정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 + 한국인 남 or 한국인 여 + 외국인 남)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3

외국인가정 자녀현황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서 외국인자녀 총 25만 명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주를 이룸
- 미취학자녀 10만 여명 40.6%
- 초등학생 자녀 10만 여명 40.4%
- 중·고등학생 자녀 5만 여명 19.0%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4

다문화학생



-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재외동포자녀, 외국인유학생 자녀
- 중도 입국 자녀들도 모두 이에 포함됨

- 국내 다문화학생 147,378명으로
- 국제결혼가정자녀 113,774명이며
 - 이중 국내출생 자녀 56,106명, 중도입국자녀 9,151명
 - 외국인가정 자녀 24,453명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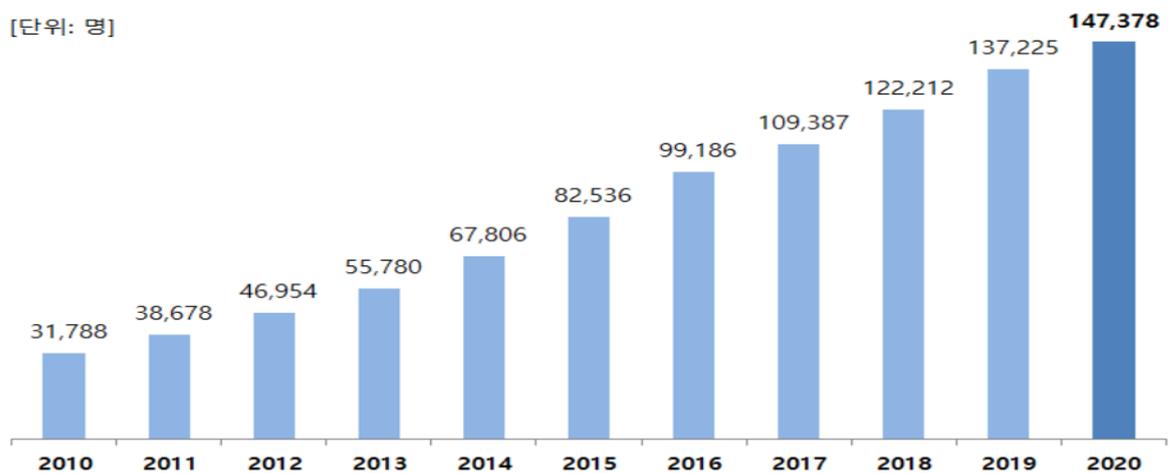
5

국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가정 자녀 현황

▶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6



충남의 다문화학생 2020년 기준 9,994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 7,070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가정의 자녀 1,529명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7

충남다문화학생현황



시도	학제	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충남	초등학교	7,176	3,477	5,811	2,824	263	128	1,102	525	
	중학교	1,941	971	1,507	764	145	80	289	127	
	고등학교	877	454	652	342	87	47	138	65	
	(일반고)	482	273	363	205	54	33	65	35	
	(특목고)	61	22	50	17	8	3	3	2	
	(특성화고)	295	134	203	98	23	9	69	27	
	(자율고)	39	25	36	22	2	2	1	1	
	각종학교									
	계	9,994	4,902	7,970	3,930	495	255	1,529	717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8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



구분		2018	2017	2016
초등학생	재적다문화학생수	93,116	82,806	74,024
	학업중단자	810(102)	819(126)	547(84)
	학업중단율	0.87(0.11)	0.99(0.15)	0.74(0.11)
중학생	재적다문화학생수	18,127	15,983	15,105
	학업중단자	243(80)	235(83)	175(78)
	학업중단율	1.34(0.44)	1.47(0.52)	1.16(0.52)
고등학생	재적다문화학생수	10,969	10,598	10,057
	학업중단자	210(148)	224(145)	154(121)
	학업중단율	1.91(1.35)	2.11(1.37)	1.53(1.20)
합계	재적다문화학생수	122,212	109,387	99,186
	학업중단자	1263(330)	1,278(354)	876(283)
	학업중단율	1.03(0.27)	1.17(0.32)	0.88(0.29)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9

충남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현황



(단위:명)

시군명	어린이집 재원외국인 아동수		
	2022년	2021년	2020년
합계	1,032	1,149	1,007
천안시	345	387	341
공주시	12	10	17
보령시	6	7	6
아산시	445	513	440
서산시	46	57	60
논산시	61	50	34
계룡시	1	1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0

충남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현황



(단위:명)

시군명	어린이집 재원외국인 아동수		
	2022년	2021년	2020년
당진시	73	78	70
금산군	6	5	4
부여군	3	4	3
서천군	2	2	2
청양군	3	3	3
홍성군	13	10	8
예산군	13	18	16
태안군	3	4	3

출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보육통계시스템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1

충남 외국인가정 영·유아자녀의 유치원 이용현황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천안	87	108	115
공주	3	2	2
보령	1	1	1
아산	127	167	194
서산	27	28	42
논산	5	3	4
계룡	1	1	0
당진	12	17	21
금산	1	2	1

출처: 충남교육청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2

충남 외국인가정 영·유아자녀의 유치원 이용현황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여	1	1	0
서천	0	0	0
청양	1	1	1
홍성	19	14	10
예산	4	4	6
태안	4	1	0
합계	293	350	397

출처: 충남교육청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3

충남의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명, 천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유아수	25,632명	24,508명	23,629명
지원 유아수	22,300명	22,540명	22,235명
지원 금액	16,492,408천원	16,651,686천원	15,314,520천원
지원 비율	87.0%	91.9%	94.1%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4

외국인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14개 교육지원청 (논산계룡지원청 포함)]

지역다문화 교육센터
- 충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정책학교(유치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5

외국인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천안	수신초병설유치원	좋은유치원
	양대초병설유치원	동심유치원
	천안일봉유치원	새천안유치원
	천안도솔유치원	도담유치원
	천안성성유치원	은파유치원
	늘푸른유치원	색종이유치원
	또바뜨유치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6

외국인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지역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공주	공주중등초병설유치원	서산	부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관유치원		차동초병설유치원
	원효유치원		대장유치원
아산	해와달유치원	논산	놀이유치원
	아이세상유치원	청양	넓은마당유치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7

외국인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지역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홍성	내포유치원	태안	태안유치원
	조양유치원		모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람유치원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병설유치원
	금마초병설유치원		
	해전대학교부속유치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8

한국어학급 (초·중·등)



지역	학교
천안	성환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천안신부초등학교
	천안신촌초등학교
	성환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학교
서산	차동초등학교
	부석중학교
논산	동성초등학교
당진	합덕초등학교
홍성	내포초등학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19

한국어학급 (초·중·등)



지역	학교
아산	과대초등학교
	둔포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아산남성초등학교

지역	학교
아산	염작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
	둔포중학교
	신창중학교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20

외국인가정자녀에 대한 법적 근거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현행 근거법이 갖는 법적 문제와 한계점
(ex.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지원 할 수 없음)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며
- 평화와 존엄, 자유와 평등의 연대정신속에서 양육받아야 함
- 제2조 비차별,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28조 교육 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 마련
- 제10조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으로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 이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 자녀에게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적응을 위한 법적 근거 제시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23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 제2조 정의 외국인 또는 외국계 국민과 혼인을 한 국민 배우자와 그 자녀, 국민의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제1항 학습자의 기본적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 제2항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등
- 따라서 성별, 인종 및 종교 등의 이유로 학습권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개성 존중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24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 제1항 학습자의 기본적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 제2항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등
- 따라서 성별, 인종 및 종교 등의 이유로 학습권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개성 존중

다문화가족지원법



-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하며
-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 제47조 청소년의 지원
- 제3장 제47조 청소년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법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 제13조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제14조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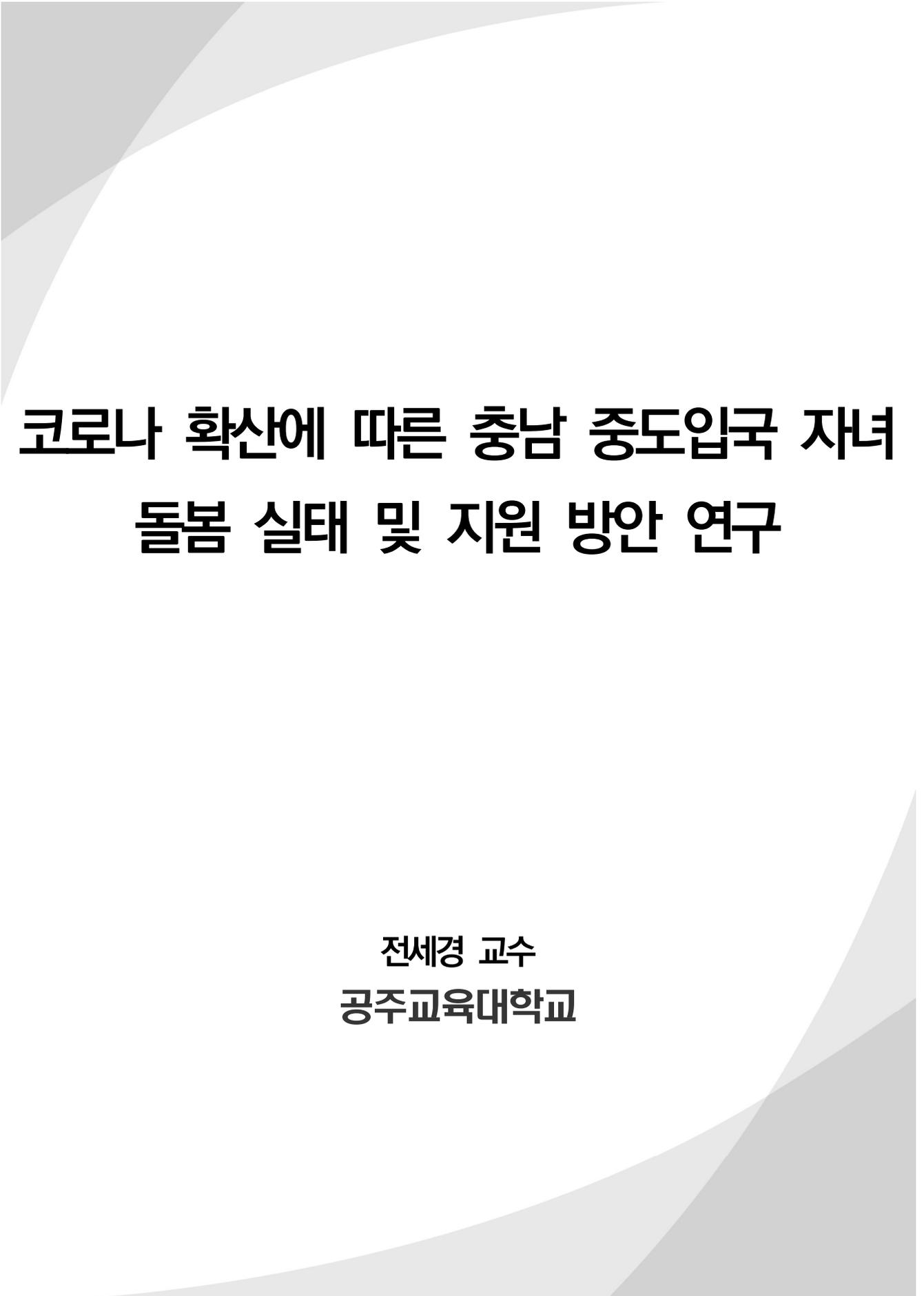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Thank you



총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윤향희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전세경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전 세경(공주교육대학교)

1. 연구의 목적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겪는 한국 생활적응에서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접근과는 또 다른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학습과 생활에서의 소통의 문제와 정서적 적응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이 필요함.

다시 말해 외국인가정 자녀나 중도입국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그들의 언어나 디아스포라적 삶이 비교적 견고히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생활적응 등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이들은 한국어 습득이 늦을 가능성이 더 큼.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정책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들은 국적 및 체류자격 기준이 없는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상황을 파악할 통계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음. 보육 및 돌봄 지원은 내국인 아동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돌봄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외국인 자녀들의 부모들은 한국에서의 언어와 문화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보육과 돌봄 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자녀가 학령기 이전의 경우 기관에서의 돌봄도 가능하나 소득대비 비용부담이 크고, 학령기 아동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은 부모가 학업을 지도하기 어렵고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정보 불평등 및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를 경험하고 있음.

자녀들은 한국어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자존감 저하 및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학교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밖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외국인 가정,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성장환경 및 돌봄의 기능을 재고하고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들이 충남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과제와 수행이 시급히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기간 : 2021년 4~7월
- 지역적 대상 : 천안, 당진, 논산, 서산, 예산, 아산
- 연구대상자: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 22명, 학부모 18명, 교사 및 기관 종사자 9명
총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연구내용 :
 - 첫째,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파악(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 비교)을 통한 돌봄의 문제 파악
 - 둘째, 돌봄에 대한 요구 파악
 - 셋째, 충남의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태 파악
 - 넷째,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돌봄 정책 방향 및 전략 제안 및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획안 도출

3. 연구결과

〈학생〉

- 한국어, 학교생활 : 가장 힘든 점은 한국어 습득.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수업시간이 지루함. 그러나 수업을 계속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는 이해하기 어려워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기도 함.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비교적 양호
- 가장 필요한 것 : 한국어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김.
- 수업 중 한국어 수업을 받기 위해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의 학업 내용 습득 자체뿐 아니라 수업 중 다른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한국어 능력이 빠른 시간내에 습득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해소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어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한 반당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수준별 혹은 맞춤형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이들은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본국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쉽게 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음.
- 가장 도움을 준 사람 : 학교선생님과 친구들. 특히 수업시간에 따로 통번역을 해주는 도움 선생님. 친구들의 도움은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부모〉

- 자녀입국후 생활적응 : 한국 친구가 없다는 것과 한국어 실력을 걱정하고 있음.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
- 자녀의 한국어 학습 등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인식 : 자녀의 한국어 학습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도 있고, 센터가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간다고 응답.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음. 특히 한국어 학습이 아닌 일반 특기정성과 관련된 교육은 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비싼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 :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 자녀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학부모 역시 한국어 사용이 서툴고 어눌한 발음으로 인하여 자녀이 한국어 학습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함. 자녀와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좋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함.

〈돌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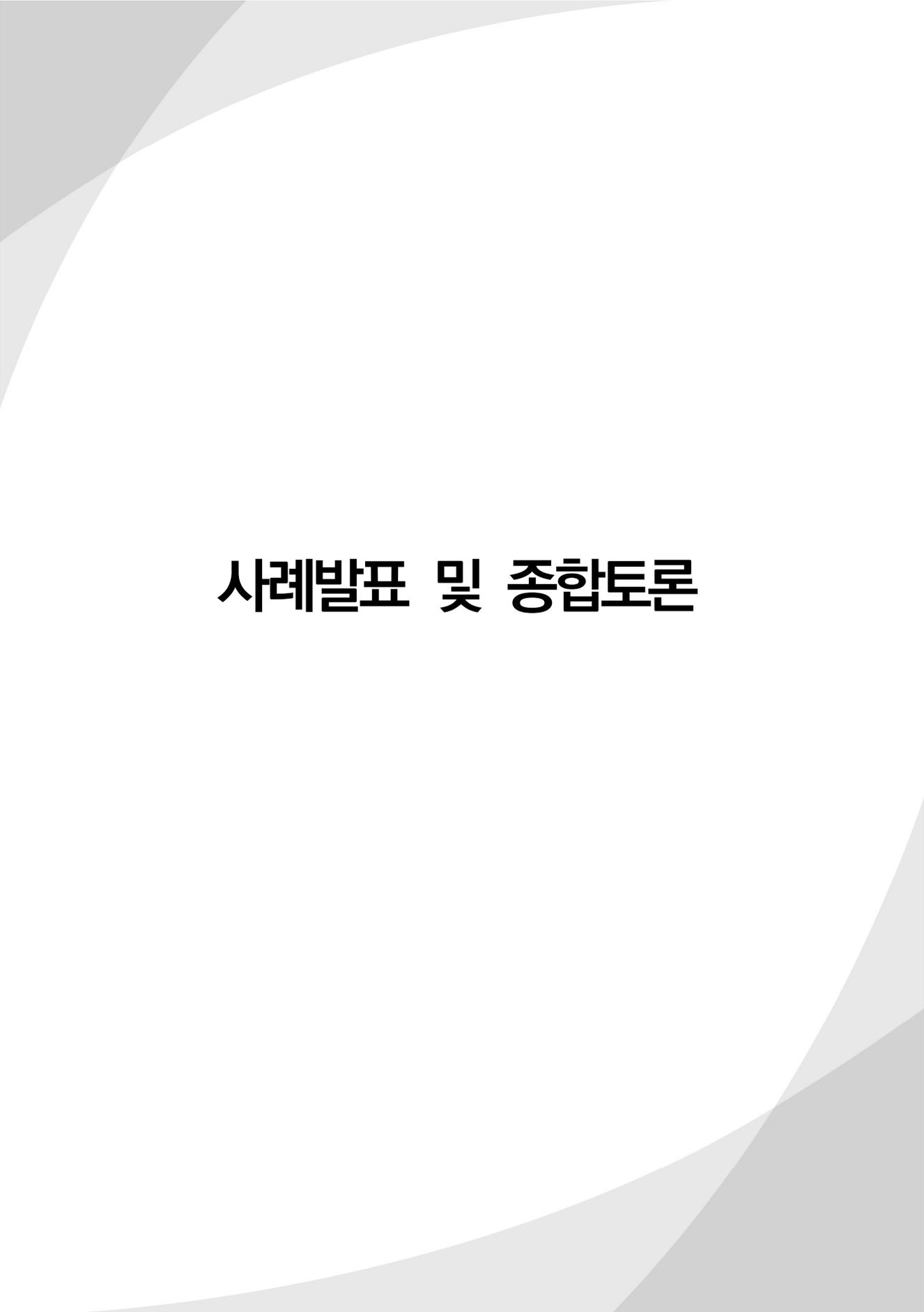
- 지원프로그램 수행 및 학생, 학부모의 반응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모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차이를 보임. 학부모는 자녀의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수학 등 교과 학습,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원함. 학생들은 학습에 관한 것은 회피하고 단순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 원하는 경향이 있음. 일부 고학년 학생은 한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지만 그 외 활동에서는 본인이 흥미있는 것만 참여하고 그 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함.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선점 :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이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함. 이중언어 교사(통역사의 역할)의 지원이 필요함.
- 언어의 문제 : 일찍 입국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경우는 잘 하게 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게 되지만, 중학생정도로 중도입국해 오면 학습이나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한국어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실태 :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학년별로 진행은 하지만, 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낮으면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들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이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한국어 수업 시간이 한 시간 내지 짧은 시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 한국어 소통미흡은 학업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불안감도 갖게 됨.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온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중고등학년이 되어 온 아이들은 학습 수준은 높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나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적응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음. 또한, 중고등학년이 되면서 그들 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음.
- 학교는 이중언어 강사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여 담당 교사가 원하는 전달사항과 의문 사항을 중간에서 통역해 주고, 학부모 또는 학생과 작간접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함.
- 한국어 발음을 지도하는 경우 발음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도입국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적응기간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4. 결론 및 제언 : 한국어교육에 대한 제언

-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 한국어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 한국어교육은 현재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그 이유로는 우선 이들은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곧 그들의 모국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음.
- 또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임.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이들은 별도로 한국어 수업 시간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받고 다시 반으로 돌아가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됨. 물론 한국어 특별학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중도입국 학생이 다수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만 해당될 뿐, 일반 학교에서는 별도의 특별학급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 중 별도로 한국어 수업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국어 수업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언어소통이 가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짐. 이처럼 한국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은 한국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될 것이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의 수도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의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실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음. 면담자 중에는 입국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언어사용에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분기별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방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업을 쉬기 때문에 한국어를 익힐 만 하면 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한국어 강사의 근무 조건도 또 하나의 원인임. 현재 한 사람의 한국어 강사는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어 강사 한 사람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한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 시간이 적음. 또한, 학생 수가 많아지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한국어 강사가 수업할 때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이 강조됨. 즉, 한국어 학습을 위해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을 확장한다면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이나 조건까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어를 전공한 한국인인 경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사전을 찾아서 보여주거나 단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여 당사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제결혼한 사람이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한국어 능력도 고려되어야 함. 만약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통역 과정에서 한국어의 발음이나 뜻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할 수 있음.
 - 우선 현재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중의 일부를 한국어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정규 수업을 대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업 결손이 계속 누적될 뿐 아니라 수업에서의 친구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어 교실 운영 방식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돌봄과 동시에 한국어 수업을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방과후 학교 수업 형태라면 매일 2시간 이상씩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

음. 요는 한국어교육 시간을 어떠한 방식이든 늘려서 짧은 기간 내 집중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아울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결혼한 사람이든,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어교육 전공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을 하려면 TOPIK 4급 이상의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TOPIK 4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임.
- 학생이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멘토링활동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대학생 멘토와 함께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교과 학습에 대한 지도, 정서적 유대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어 습득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어교육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이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어이므로 어떠한 교육 서비스나 정책보다도 한국어교육이 모든 지원에서 가장 일선에 있도록 해야 함. 게다가 한국어 습득은 중도입국 후의 적시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교육 진입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